

지혜 · 믿음 · 실천 연계 ‘三道會通’ 가르침 전해

불교로 읽는 古典

힌두 경전 <바가바드기타> ①



김호성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힌두교의 성전인 <바가바드기타(이하 기타)>에 대한 나의 사색은 1992년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직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거기에 나의 '주제' 가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나' 라고 할 때, '나' 는 어떤 존재일까? 이 물음은 나라의 존재의 본질을 묻는 물음이 아니다. 존재의 양식을 묻는 물음인데,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두 가지 차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vs 나"라는 차원과 "나 vs 다른 존재"의 차원이다.

지혜와 행위의 조화

"나 vs 나"의 차원에서 요구되는 과제는 깨달음이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론은 선(禪)이다. 그런 깨달음에 불교는 자리(自利)의 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나 vs 다른 존재"의 차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만 있고 후자가 없다면, 자리만 있고 이타(利他)는 없게 되리라. 그것은 바로 소승(小乘)이 아닌가.

자리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론이 선이라면, 이타의 차원에서 최선의 방법론은 대승불교의 보살행이다. 그러므로 내게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 양자를 잘 조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러한 나의 문제의식에 해답을 제시해준 분이 바로 보조지눌(普照 知訥, 1158~1210)스님이었다. 돈오(頓悟)는 자리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점수(漸修)는 <절요(節要)>에서 말해지는 대로 화엄의 보살행이라는 차원이 있었다.

<기타>에 대한 첫 논문 '바가바드기타에 보이는 카르마요가의 윤리적 조망' (<인도 철학> 제2집)을 발표한 1992년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석사과정 학생이었던 1987년부터 1992년까지 6년간, 송광사에서 설립한 '보조사상연구원'의 간사로 일하면서 보조사상학을 읽은 덕본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기타>를 읽어보니, <기타>야말로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리적 차원에서는 깨달음(<기타>의 용어로는 지혜(jñāna)를 말하고 있으면서,

이타적 차원에서는 보살행(<기타>의 용어로는 행위(karma)를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양자의 결합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이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지혜와 행위의 회통(知行會通)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통은 서로 다른 양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양자가 함께 어우러질 때 쓰는 말이다. '모일 회(會)'라는 글자는, '수도 서울'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회통은 "수도인 서울에 가지만 하면 어떤 곳에서 온 사람이라도 다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수도 서울에 가지만 하면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타고 온 교통편의 차이나 행로(行路)의 차이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회통'이라는 말은 동아시아의 불교에서 쓰이는 말이었지만, 그러한 사고방식 자체는 인도의 힌두교에서도 존재한다. 지행회통에 해당하는 산스크리트 'jñāna-karma-samuccaya'를 그 제목으로 쓴 <기타> 주석서가 있음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인도의 힌두교 경전인 <기타>에서 말하는 지혜는 "내가 곧 아트만이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한다. (산스크리트에서 '깨달

자신이 '아트만'임을 아는 것이 '바가바드기타'가 전하는 깨달음 지혜와 행위의 회통 방법 전해 "내 자신이 곧 부처" 불성론과 보조 지눌 '돈오점수' 와도 맞닿아 정토신앙과 연계 연구 '내 과제'

다'는 말과 '아트만'은 말은 공히 'buddhi'라는 말을 어근으로 갖는다.) 아트만(atman)은 궁극적으로 참된 나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브라만(brahman)과 같기에 범야일어(梵我一如)라 말해진다. "내가 곧 브라만이다", "내가 곧 아트만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불교도들은 "내가 곧 부처다"라는 말이 생각날 것이다.

그렇다. '아트만/브라만'과 '부처'라는 말 사이에는 개념적인 차이가 없지 않으나, 그 형식에서 볼 때는 궁극적 존재 내지 궁극적 깨달음을 내 안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내가 아트만이다"라거나 "내가 브라만이다"라는 말은 힌두교에서 하는 말이고, "내가 부처다"라는 말은 불교, 특히 대승불교나 선에서 강조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기타>에 와서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그보다 앞



캔디스 강에서 목욕재계하며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힌두교도(사진 위)와 동양계 수행 중인 월정사 만월선원 수행자들(사진 아래) 자신을 불성을 찾아가는 불교의 수행과 자신이 '아트만'임을 알아가는 힌두교는 닮은 부분이 있다.

서 성립한 우파니샤드 문헌들에서 폭 넓고도 깊이 설해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기타>의 새로움은 지혜를 말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행위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에 있으며, 지혜는 지혜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점을 말한 데 있었다. 우파니샤드에도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는 있지만, <기타>에서의 강조와 역설을 생각하면 그 밀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기타>를 펼쳐놓고 지행회통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은, 바로 보조 지눌 스님의 가르침에서 배웠던 선과 행의 회통이라는 문제를 한번 더 살펴보고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지혜와 행위의 조화라는 문제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힌두교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共觀), 함께 공부하는(共學) 것은 하나의 새로운 방법론이라

해도 좋을리라.

세 가지 길의 조화

지행회통을 설명하는 데, 나는 지혜로부터 시작하였다. 그것이 개념 설명의 순서상 편리해서였다. 그러나 사실 1992년의 논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행위를 중심으로 했던 것이다. 지혜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전제라는 위상을 갖는 것으로 말해졌을 뿐이다. 이는 어떻게 보면, 지혜와 행위의 회통을 말하고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타>와 나 자신 공히 행위에 중심을 두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행위의 문제를 중심으로 <기타>를 읽었던 것은, 아마도 내가 자신이 7080세대여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 시대의 화두는 지혜보다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행위의 입장에서 지혜에만 안주하는 풍토를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것 아닌가.

우리의 현대불교에도 그러한 행위중심의 관점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으리라.

이러한 경향은 7080세대인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 인도에서도 그랬다. <기타>는 바로 그러한 컨텍스트를 의식하면서 <기타>를 읽는 사람들에게 영감과 힘, 그리고 용기를 제공하는 텍스트였던 셈이다. 인도가 영국 제국주의의 지배 아래 놓여있었다는 컨텍스트 속에서 근대의 선각자들(=힌두교 부흥운동 지도자들은) 다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기타>를 재해석하고자 했다.

그를 통해서, 인도 민중들에게 "일어나라, 영국에 대항하여 싸워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틸락(1856-1920), 간다(1869-1948), 오로빈도(1872-1950), 비베카난다(1863-1902), 비노바 바베(1895-1982)와 같은 해석자들

이 다 그러하였다. 모두 "<기타>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기타>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행위하자는 메시지에 다른 아니었다.

나는 지금도 이러한 행위 중심의 <기타> 해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글을 쓰고 있다. 특히 틸락과 간다에 대해서 주로 생각해 오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내 생각도 조금은 변하였다. 나이가 들어가는 소식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전보다 훨씬 더 '믿음(bhakti)'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은 지혜, 그리고 행위와 함께 <기타>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길의 하나이다.

<기타>의 믿음은 신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지혜의 길과 행위의 길에 더하여 믿음의 길 역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기타>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행위 역시 우파니샤드에서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지만, 믿음은 더욱더 비중이 없었다. 그만큼 믿음의 길이 설해져 있다는 것은 <기타>가 성립되던 시대(기원전 2세기~기원 후 4세기)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중들에게 믿음을 쉬운 길(易行道)로서 제시하였던 것이다.

지혜와 행위를 회통한 것처럼, <기타>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 실력을 발휘한다. 지혜는 믿음의 전제가 된다고 말하며, 또 믿음을 전제로 해서 행위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세 가지 길은 서로 서로 의지하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삼도회통(三道會通)이라 할 만한다. 마하트마 간디 같은 해석자는, 행위에 강조점을 두면서도 삼도회통의 맥락에서 <기타>를 바라보고 있다 해도 좋다.

<천수경>이나 <백화도량발원문(의상 스님 지음)>을 중심으로 관음신앙을 해오던 나 자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나무아미타불'의 정토신앙에 잠심(潛心)하고 있다. 그에 비례해서 <기타>의 세 가지 길 중에서 '믿음의 길'에 더욱 마음이 가게 되었으니, 그 출발점은 2006년에 쓴 '바가바드기타와 관련하여 본 한양의 염불참선수이론' (<한양사상연구> 제1집)이라는 논문이었다. 행위에 초점을 둔 해석자들(틸락과 간디)의 관점을 살펴보는 일 역시 아직 미완성이지만, 앞으로는 <기타>의 믿음과 우리 불교의 정토신앙을 함께 살펴보는 방향으로 더욱 더 나아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기타>를 읽는 것은, <기타> 안에서 불교와도 상통할 수 있는 점을 찾아가는 길이다. 나는 그 상통하는 측면을 텍스트라 불러서, 비판하고자 내다버려야 할 부분을 컨텍스트라고 부른 것과 구별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나는 우리 불교를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싶고, 좀 더 새롭게 보고 싶다. 그것이 <기타>를 읽고 또 읽는 깨달음이다.

(사)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명진 석법운 대종사



종정 명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로의장 보운
원로총무 수덕 원로위원 해산
원로위원 월각 원로위원 해담
원로위원 흥원

총무원
총무부장 (대행) 재무부장 월산
교무부장 선각 문화부장 한담
규정부장 해오 법규위원장 설산
환경위원장 혜득 신도회장 조태흠
사업부장 이재철

총무원장 (대행)
행정위원장 도경 사정위원장 법륜 문화위원장 진송
교육위원장 청담 포교위원장 동화
비구니위원장 법화 청명 비구니위원장 설봉

총무원
경북1총무원장 월정 경북2총무원장 성덕
경북4총무원장 해산 대구2총무원장 해산
대구1총무원장 광덕 경기1총무원장 원담
충청1총무원장 계현 전라1총무원장 법도

- 임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법계고시 공고

- ◆ 일 시 : 불기 2558년 5월 25일(일)(음 4월 27일) 오전 11시
 - ◆ 장 소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호 ☎054)974-2605
 - ◆ 법계고시 위원장 : 법운 / 위 원 : 수덕, 동화, 도견, 진송, 법화
-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호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승주 : 도량석, 중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묵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매불이운), 대령, 관육, 용오계(신중작법39위, 104위), 당일천도, 49세, 지장청, 시왕도청, 전사식, 관음의식, 상응영반, 화엄사시, 구병사시, 불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사다리(다비), 예수재의식 등
-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